



I&S
INTEGRATION & SOLUTION

아이앤에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영길

고객의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앤에스(I&S)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한 믿음.
보편적이며 타당한 원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의를 해결하는 것.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발견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텔리24 동관19층



스탠리 그린츠 지음 | 장경철 옮김 | 신국번형 | 480면 | 18,000원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동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라!” *Created For Community*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는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책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었으면 한다.

— 김성수(고신대 총장)



한 평생 창조론 연구에 매진해 온 양승훈 교수가 직접 들려주는 창조론 동영상 강의

6장의 DVD 총 24개 강의로 구성된
1세트가 33,000원



양승훈 교수

현 VIEW(벚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역임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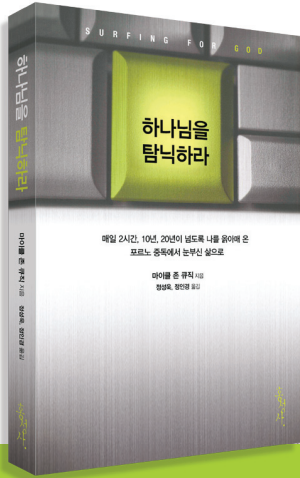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BA)
KAIST 물리학과 반도체물성(MS, Ph.D)
위스콘신대학 과학사학과(MA)
위튼대학 신학과(MA)

저서

「다중격변창조론」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창조와 격변」 「창조론 탐구학습」 「창조론 대강좌」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프라이드를 탄돈키호테」 「물에 빠진 오리」 등 다수



하나님을 탐닉하라



매일 2시간, 10년, 20년이 넘도록 나를 울아매 온
포르노 중독에서 눈부신 삶으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포르노입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이야기,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 이야기, 당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며 전하는 위로와 격려! 이 책은 포르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이 문제가 훨씬 심층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많은 예화와 경험담이 소개되며, 20년이 넘는 상담 경력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치유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유혹의 순간, 포르노가 아닌 더 좋은 것을 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포르노 중독으로 인한 장애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교량이 되게 한다.

마이클 존 큐직 지음 | 정성욱·정인경 옮김 | A5변형 | 360면 | 16,000원

문고 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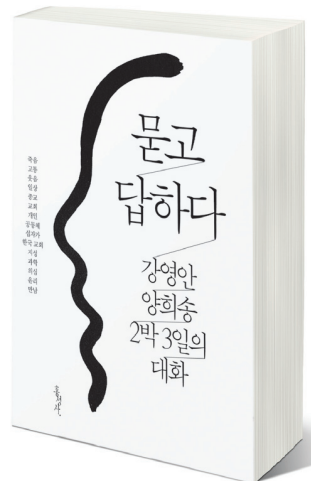
강영안·양희송 2박 3일의 대화

기독교 지성 강영안과 복음주의 운동가 양희송이 만나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이 시대와 신앙에 대한 빛나는 통찰과 해안

2박 3일간, 경기도 양평의 모새골에 우리 둘은 남겨졌고, 먹고, 자고, 걷고, 웃고 울면서 13시간 분량의 녹음을 남겼다. 나는 집요하게 질문을 바꾸어 가며 파고들었고, 강영안 교수는 검토해야 할 문제의 핵심을 즉각 분별해 내고, 그 논의에 필요한 중서양 고전과 사상가를 바로바로 인용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백과사전과도 같은 지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르네상스적 지식인을 눈앞에서 만나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양희송, '들어가며'에서**

질문하는 일에 더 익숙할 뿐 아니라 해답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대답에만 몰두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 질문은 하지 않고 줄곧 대답으로 2박 3일을 일관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 나는 내가 한 대답보다는 양 실장이 나에게 던진 질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질문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강영안, '나가며'에서**

강영안·양희송 지음 | A5변형 | 272면 안팎 | 13,000원



홍서사. <http://www.hsbooks.com>
T. 333-5161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 김승욱 (발행인)

동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난해에 본지는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2013년 새해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 변혁을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야별로 다루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는 악한 세상 문화를 피하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문화관을 견지합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악이 창궐하기 힘든 세상, 그리고 복음 전파에 유리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는 문화명령은 타락 이후에 노아에게도 계속되었고(창 9:1, 9:7), 예수님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명령을 통해 반복되었으며, 이 명령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균 수

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인류에게 또 다른 도전 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즈와일 총장의 예측같이 2045년에 인간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열린다면 돈이 많으면 생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산업화 시대는 끝났는데, 새로 올 세계의 모습은 아직 형체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다에서 마실 물이 귀하듯이,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 끝에 나오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2013년 본지는 세상의 변혁을 위해 사교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동인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과학기술, 교회 및 가정 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또 각 영역의 제자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분야별 모임이 중심이 되어 꾸며볼 것입니다. 새해 첫 호는 정치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Contents

WORLDVIEW · JANUARY · 2013



COVER STORY

- 08 컨퍼런스 소개 Media & The Family 리더십 컨퍼런스
- 09 강연 청년, 미디어, 우리가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_빌 오슬러
- 15 단체 소개 어깨동무사역원 소개
- 16 영화소개 창끝 End of the Spear, the Grandfather

SPECIAL

- 18 약자 보호가 정의 _손봉호
- 22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정치, 정치 리더십 _백승현

COLUMN

- 04 발행사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_김승욱
- 32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씨, 스승 신국원에게 묻다! _신국원
- 36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필독서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_이인아
- 38 HOW.TO. 주일학교 주일학교, 미디어 정복기! 1편 위험한 기계 _김희경



표지인물
빌 오슬러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ULTURE

- 45 책소개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_편집부
- 49 DVD평 쉐퍼의 서양 문명 비평 영화를 소개합니다 _성인경
- 52 유머 강아지와 시가 _손봉호
- 54 가로세로

BOOK REVIEW

- 26 서평 정의를 넘어 삶과 포용으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와 『배제와 포용』을 읽고 _김성민

NEWS

- 53 사무국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편집 김승욱
편집위원 김승태, 김해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종모, 이상정
에 디 터 신효영
교정/교열 김선경
디 자 인 황정희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어깨동무사역원에서 주최한

Media & the Family 리더십 컨퍼런스

지난 11월 3일 토요일 어깨동무사역원 Nameless Hall에서 “Media & the Family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중문화 및 미디어의 위력과 영향력에 대하여,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스마트 시대의 소통 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20년 넘게 기독교적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영화 제작과 영화 평론가로 섬겨온 Movie Guide 회장 테드 베어(Ted Baehr)와 부회장 로버트 베어(Robert Baehr) 부자, 그리고 가정과 교회, 학교 등에서 사용할 최고의 멀티미디어 성경교재를 제작해온 Faith Inkubators 대표 리치 멜하임(Rich Melheim) 목사, 에콰도르 순교자 5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창끝’(End of Spear, 2006)과 그 속편 ‘Beyond the Gates of splendor’(2002) 등 영향력 있는 기독교 휴먼 다큐멘터리 성격의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한 빌 오슬러(Bill Oechsler) 회장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월드뷰는 특별히 기독교 휴먼 다큐멘터리 성격의 영화를 제작하는 빌 오슬러 대표의 강연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Guest Speaker 소개



Dr. Ted Baehr (테드 베어 박사)

기독교적 시각의 영화 전문 잡지인 무비가이드의 설립자이자 발행인이다. 미디어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선두주자로 건강한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

- 무비가이드 설립자이자 발행인
- 기독교 영화 TV 위원회 회장



Rev. Rich Melheim (리치 멜하임 목사)

기독교 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Faith Inkubators의 설립자이다. 기독교 가정 교육 전문가로 CNN, WNBC 등에서 가정 컨설턴트로 활약 중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펴고 있다.

- Faith Inkubators 설립자
- Preschool Incubators Project 설립자



Bill Oechsler (빌 오슬러)

종교적 분쟁이나 사회적 문제 등 이 시대의 이슈를 영화 및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실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Ethno Graphic Media 대표
- West Virginia University 교수
- XLER 마케팅 & 컨설턴트



Dr. Byoungchul Joseph(BJ) Jun (전병철 목사)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제 협력 실장
- 어깨동무사역원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장



청년, 미디어 우리가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이 강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청년문화와 현대문화의 '다름'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빌 오슬러 (E.G.M 대표, 영화 「창끝」 제작자), 정리: 편집부

미디어, 기술, 이야기

At first Glance

청년.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

첫 번째 특징은 자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도,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또한 회의적인 태도도 청년들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반항하는 세대입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위 '귀차니즘'이라 할 정도로 '도대체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 전통, 역사관에 있어서 기준이 없

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도덕적 가치들을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좀 더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것, 공동체와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

는 것 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서 어렵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단순히 생존하기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과 발달된 기술을 통해 다음 세대에 이 좋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몫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결정을 내리기까지 꽤 복잡합니다. 우리는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24시간 정보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전 시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거와는 다르며 또한 다른 접근법으로서의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모든 채널을 통해 뉴스와 소식을 접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경우 더더욱 자본주의라 그래서인지 갈등, 소비주의, 인기 추구하는 성향 등이 강합니다.

절대 팔지 말아야 하는 것

저는 20여 년간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말보로 등의 상업 광고를 기획했습니다. 맥도날드나 월트 디즈니에서 일할 때는 선물을 많이 들고 오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보로 광고를 할 때에는 선물을 들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아빠가 실직자가 된 줄 알았답니다. **광고 기획은 모든 걸 팔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20년 만에 그 광고 회사를 떠나 비영리 단체들만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술, 담배 등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광고나 기획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것들이 불법적인 상품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광고 기획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심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디어가 좋아하는 것

저는 신문방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신문 방송에서는 갈등을 좋아합니다. 여자와 돈,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는 언론에서 논문의 주제로 자주 사용됩니다. 분열, 갈등 등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자를 성적으로 상품화 시키는 시대이며, 돈을 좇고, 부자를 좇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사회가 꼭 그런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미디어에서는 소위 '잘 팔린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만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돈, 전쟁 이 세 가지는 검색 포털 상위에 랭크된 단어들입니다. 누가 평화를 검색



하며 평안을 검색합니까. 사람들은 평화나 평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예술 등에서 대상(타겟)을 선정할 때, 가장 민감한 세대인 18-25세의 청년을 주(主)소비자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들을 주 고객으로 삼아야 오랫동안 이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기술이 채워주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신앙뿐 아니라 문화, 예술을 배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에서 사람들이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채널과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 미디어의 중심은 여론을 반영하기에 앞서 조정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마저 '강요'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효율성을 따졌지만 새로운 기술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소비성을 자극합니다.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 소비를 강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전 사회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이야기(사연)'입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9억명이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봤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 한 편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저 역시 한국을 좀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그 속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는 가사의 뜻도, 한국의 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비디오 클립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이'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한국을 알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나를 알지 못하



는 이들에게 소개할 것이며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입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대이며 이야기가 힘을 갖는 시대입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 이 연령대의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 회사는 이 사회적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관련 연구소에 의뢰해 18-25세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심층 면담을 통해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연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2,150명의 청소년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남녀 성비,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까지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하게 균형을 맞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광고기획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절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 이 연령대의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 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 아는 바 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담을 갖고 그들에게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

청년들은 '나' 곧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믿는 것을 넘어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위선적입니다. 가치가 있고 그것이 신념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기성세대에 질려버립니다. 청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성장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실천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성, 두 번째가 소속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가 있거나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이란 타인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공통분모를 가지는 것을, 공동체에서 의미 있게 여기고 보람 있어 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받고 싶어 하



며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싶어합니다. 기성세대가 선택이 중요하니 신중하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비웃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좋고 그르코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또 소속된 공동체 사람들의 영향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혹은 파괴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 지향적인 성향을 기성세대인 내가 악용하여 내가 의도하는 것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성세대는 늘 자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소통의 매개체의 지향점들을 이용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자율성과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비시켜 줘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 속에 밀어 넣다

우리가 연구하며 발견한 또 하나는 ‘사람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들려주며 접촉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교육법과 교수법의 특징은 이야기를 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은유와 비유가 당시의 환경과 상황에 적절히 빗대어 있어 당시의 사회적

이슈들을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여 궁금증을 유발하고 사람들을 이야기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다시 이야기를 풀어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청년들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통찰력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긴장감을 주고, 이야기 속에서 궁금해 하고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호를 풀어낼 수 있도록 교회나 공동체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홀로 남겨졌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교회나 지도자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연구를 통해 알아낸 청년들의 이 세 가지 특성, 즉 자율성, 소속감,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야기와 영상 매체를 통해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사역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청년 세대들에게 감동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주어 자신들 안에 보이지 않는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사랑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라

이 일은 기술을 사용하기에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미디어(매개체)를 사용할수록 더욱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탁월함을 칭찬받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화를 본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적이라고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의 한 여자아이가 <창끝>을 보고 영화속 등장인물인 여자아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투영하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 다른 자신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밀어 넣어 더 풍요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제작자인 나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영화 속의 메시지를 보며 평범함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밀어 넣어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나 우리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는 문명은 지속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문화 속의 이야기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로 만들어 냅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문화 속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서 깨닫게 된 것은 언어와 환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영상으로써 이 영상이 마지막 전달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전달물은 '이야기'입니다. 테드 박사(DR. Ted)의 말처럼,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문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어낸 이야기들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궁극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돈과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며 현명하며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달하려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EGM필름(빌 오슬러 대표) www.egmfilms.org



다음세대를 세우는
한국어깨동무사역원

어깨동무사역원 소개

어깨동무사역원은 지구촌의 1.5세와 2세대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차세대 한국교회 사역의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어깨동무사역원은 팀 사역의 실제적인 훈련과 양육을 통해 지구촌에 흩어진 10,000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건강한 네트워크와 성장을 도모합니다.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올바른 건전한 부흥과 성장한 열매를 다음 세대들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하는데 있다고 보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개원한 한국 어깨동무사역원은 여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한 리더십학교와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자 컨퍼런스 등



을 진행해 왔으며, 디아스포라 시대를 준비하는 어깨동무사역원 국제 컨퍼런스와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한국 역사탐방, 세계 기독교 부흥과 선교 역사탐방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어깨동무사역원은 앞으로 한국교회, 한국사회, 세계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또한 PPF(환태평양 기독교 영화제), 아름다운 운동주 음악회, 기독교 뮤지컬 및 성극, 콘서트 개최, 기독교 다큐 및 영화제작 지원 등을 진행하며, 앞으로 어깨동무사역원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젊은이들 중심의 협력교회를 개척하여 차세대 리더 양성의 실험장이자 요람으로 세워 가려 합니다.



어깨동무사역원 홈페이지 www.s2skorea.org



영화소개

창끝 & Grandfathers

빌 오슬러의 BGM필름에서 제작하여 국내에 알려진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창끝 End of the Spear>, 그리고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 제작한 후속편 <the Grandfathers>을 소개합니다.

창끝 End of the Spear

용서를 모르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미 정글 에콰도르의 아우카(와다니) 족을 찾아가다 그들에게 죽임당한 선교사들. 살아남은 그들의 가족이 남편이자 아버지를 죽인 와다니 족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짐 엘리엇(Jim Elliot)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죽이는 부족 간의 전쟁으로 상대 부족을 제압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아들이 복수를 해야만 하는 불문율이 있다. 부족이 자멸할 지라도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와다니 족에 의해 선교사가 죽고 그 아들과 선교사의 아내들이 찾아왔을 때, 부족장 민카야니는 선교사의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부족의 가족이 된 용서와 구원의 영화 <창끝>.

“내 아버지는 창끝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복수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the Grandfathers

<창끝>의 후속편으로 같은 이야기를 청년 세대에 맞춰 다르게 만들었다. 똑같은 이야기도 환경에 따라 익숙하지만 낯설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떻게 청년사역을 해야할지, 같은 메시지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지 제안한다.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같은 맥락으로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청년인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창끝>과 달리 속도감, 그래픽, 음악 등 변화된 세대에 맞게 다른 컨텐츠를 사용하였다. 같은 이야기지만 새로운 이야기, 영화 <the Grandfathers>.

“나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살리려 그곳으로 간다.”





WORLDVIEW SPECIAL



살롬을 향한 정의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하게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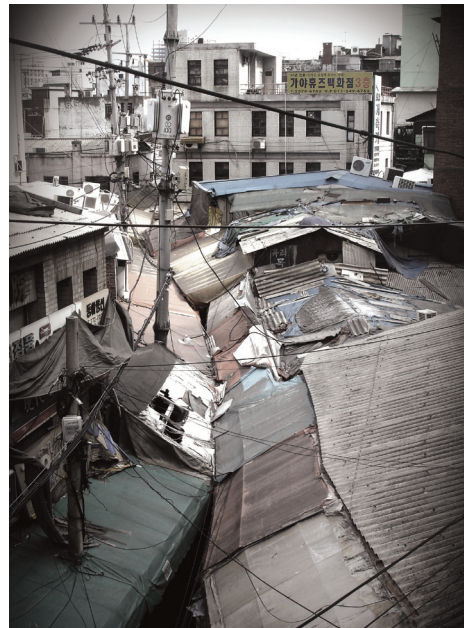
_새찬송가 460장. 뜻 없이 무릎 꿇는



약자 보호가 정의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일은 국방, 외교, 치안 외에도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수없이 많고,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에까지 간섭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분야에 아무리 크게 성공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는 그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다른 기능들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질서 유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 이유이다. 국가의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홉스(Thomas Hobbes)가 제시한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가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약육강식의 무질서를 막기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 일부를 양보하고 자신들을 통제하도록 만든 거대한 괴물(Leviathan)이다.



진정한 질서는 강력한 공권력만 행사하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확립되어야 가능하다. 정의의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은 로마서 13장 4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이다. 선에 대해 상을 주고 은혜를 갚는 것도 정의의 한 요소이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악에 대해 보응하고 복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면 억울해 한다. 억울함의 기준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억울함을 당하면 보복하려 한

다. 루소(J. J. Rousseau)의 제자 이타드(Itard)는 야생 소년 빅토르가 억울한 처벌에 대해 복수하려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억울한 처사가 없었다면 정의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의의 개념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철학자 밀(J. S. Mill)이 지적한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상황’(injustice)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고 정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억울함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해를 끼쳤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분배 받지 못했을 때도 느낀



다. 이것 역시 정당한 권리의 침해이며 억울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공동의 부를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받았을 때도 우리는 억울해 한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복수하는 보응의 정의 (retributive justice)뿐만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분배의 정의 (distributive justice)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해진 오늘날에는 전자보다 후자에 더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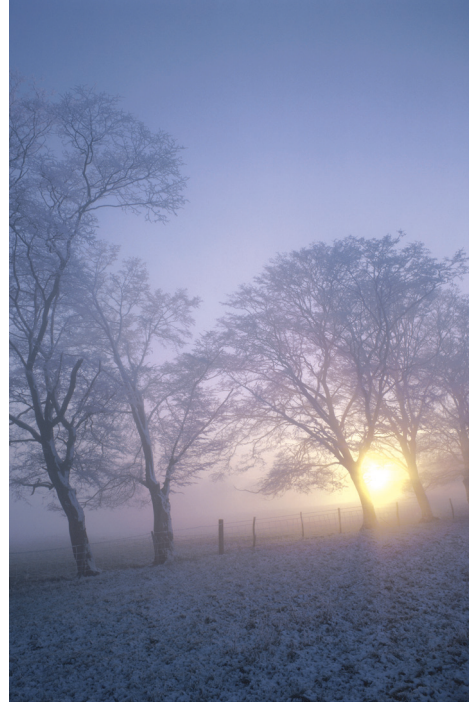
그런데 복수와 분배를 개인에게 맡겼을 때 충분히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보응 혹은 보상과 분배가 지나치게 적어서 억울함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커서 또 다른 억울함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객관적

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보응과 분배를 수행할 힘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보응, 보상, 분배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그 법의 제정에 간접적이지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 법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결정에 순응한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 경기에 참여할 때 그 경기의 규칙을 자발적으로 존중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이는 것이 정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투표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독재적이라 할 수 있다.

정의의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은 로마서 13장 4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약자다. 억울함을 당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약자란 것을 함축한다. 교통질서는 탱크나 덤프트럭 같은 강자에게는 귀찮은 것이지만 보행자, 자전거, 소형 자동차 등 약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통질서가 무너지면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된다.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저축은행비리의 피해자들도 주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정의란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보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정의가 무엇인가?”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을 하거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정의(定義)를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을 내린다. 구약에서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확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할 것(사 1:17)을, 신약에서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지체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눅 14:13)고 명령한다. 즉 그 사회에서 가장 홀대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회 질서, 나아가서 정당하게 제정된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복지제도도 정의의 한 요소이므로 복지를 위한 납세와 자발적인 나눔도 정의에 공헌하는 것이다. 반대로 법과 규칙을 어기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약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정의에 어긋난다.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법과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납세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의에 충실한 것이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정치, 정치 리더십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선 기간 동안만큼은 정치와 정치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선거 열풍이 휘몰아쳤던 자리 위에 이제 수많은 국정과제들을 차분히 다져나가기 위한
조화와 화합의 질 높은 정치 한마당이 펼쳐져야 할 때이다.
새 정부 탄생을 앞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와
정치 리더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와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백승현 (경희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치·외교 분과장)



성경 속의 국가관

정치와 정치 리더십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속의 국가관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한다. 모세의 인도 하에 출애굽 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민족)들과 달리 왕을 세우지 않은 채, 사사라 불리는 선지자들의 영도에 의한 신정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오랫동안 독특한 형태의 정치적 실존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면 그가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삼상 8:10-18). 그럼에도 백성들이 끈질기게 왕을 요구하자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셨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즉 어떻게 세워졌든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도 드러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롬 13:1-2) 바울은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친다(딤후 3:1).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므로(골 2:10)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신다.

모든 정치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정부관리의 권위도 하나님에 결정하셨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견해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정권도, 히틀러, 스탈린 등의 권력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

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딤후 2:1-2). 베드로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주를 위해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벧전 2:13-17). 성경은 일관되게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일부

그러나 국가권력 자체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은 때로 군대, 경찰 같은 강압과 강제 수단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보다 악에 가깝다. 중세 초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악한 존재인 만큼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악’으로 보았다. 한편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하인리히 에밀 브루너는 “비록 권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랑에 위배되지만, 사랑을 위해 국가가 권력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브루너는 사회의 부정과 정부의 폭정에 교회가 침묵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공의 실현을 위해 정부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즉, 국가는 비록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제정된 제도와 산물이지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자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치적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지라도, 국가의 모든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의 국가와 그 권력을 행사하는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 즉 정부관원을 구별하는 게 바로 기독교적 국가관의 기초이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즉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 두 나라의 시민권(요 18:36)을 가진 존재이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며 협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집권자들을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집권자는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義)를 실현하는 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듯이(행 4:19-20), 백성(국민)은 정부나 권세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권력이나 엄청난 구조적 불의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흑자들은 폭력적 방법을 불사하는 저항도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에 불의로 저항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또 하나의 불의이자 폭력에 해당한다. 성경은 이러한 대응에 반대한다. 악을 악으로, 불의에 불의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기독교적 관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

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구주되심을 증거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던 관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고 하였다. 국가의 어떤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명제이자 기독교적 국가관의 요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치권력의 명령에는 당연히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치하는 인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삶의 한 단면이다. 또한 정치가 인간만의 특징인 만큼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또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정치에 대한 관점과 직결된다. 즉,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육체적 존재로 보든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초월적 영역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는 존재로 보든가 또는 그 어간에 위치하는 존재로 보든가에 따라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달라진다. 기독교적 관점은 당연히 인간을 물리적 차원과 초월적 영역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는 존재로 본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간관을 살펴야 하는데 창세기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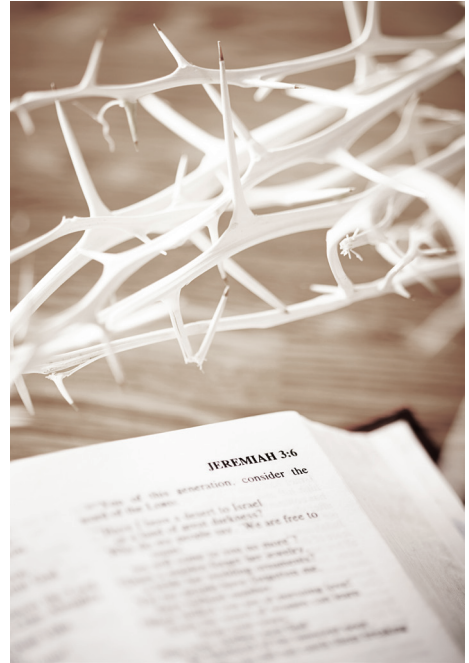
창세기 기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면서도 때로 의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다. 인간 본성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할 수도, 그릇되거나 악한 것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의지적(willful) 존재라는 것이다. 즉 악한 행위는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며, 인간은 선과 악 중 어느 한쪽을 택하여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

사실 구약 대부분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여러 선지자들의 잦은 훈계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길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이야기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징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구약은 옳은 길을 행하기로 선택했지만 악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마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여 죄악의 길에 서게 되었으나 다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인간과 정치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이다.

다니엘의 지혜

성경은 정부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가 다니엘이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단 4:27) 이 본문은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치가 부패와 타락, 음모와 술수 등으로 얼룩져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치는 인간을 부패시킨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삶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 부정의의 근원을 인간 영혼의 무질서에서부터 찾아냄으로써 인간 행동의 일탈성(죄)에 대해 반성(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치유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치유의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치 지도자를 현실정치에서 맞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다만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사회의 범주에서 치유가 어렵다면, 적어도 한 개인의 작은 우주인 인간 영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에서 시작하여 점차 동료 시민들의 영혼 속으로 한 사람씩, 시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영혼적 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리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흐름을 형성하게 될 때, 그 사회의 정치 지도자는 바로 그러한 질서 잡힌 영혼과 의식을 가진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더욱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에베레스트가 고산준봉들로 가득한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 그들 중 우뚝 솟아 세계 최고봉이 된 것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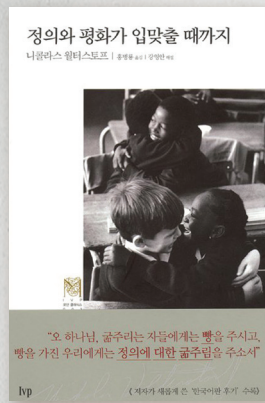


백승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치/외교 분과장이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B.A.),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M.A.),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Ph.D.)에서 수학했다. 현재 새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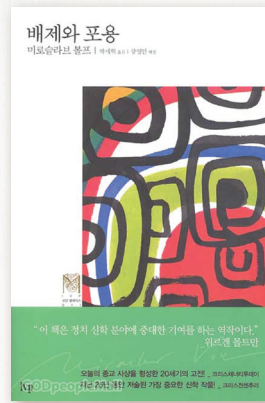
정의를 넘어 살림과 포용으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와 『배제와 포용』을 읽고

김성민 목사 (SFC출판부 편집장)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저
홍병룡 역 | IMP



미로슬라브 볼프 저 | 박세혁 역 | IMP

I

본 글에서 소개하고자하는 두 권의 책은 원서 제목으로 포용(embrace)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각각 동사와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표면적으로 정의와 평화라는 주제를 함께 다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두 책은 세부적인 관심 주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는 현실인식을 위한 사회적 구조 분석과 그에 따른 변혁적 실천의 조화에 방점을 둔다. 반면 『배제와 포용』은 상대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보다 그런 변화를 추동해가는 포용의 인격성을 가진 사회적 행위자(agent)를 강조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관심사는 글의 내용과 전개방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책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주제어인 살림과 포용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

II

윌터스토프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가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세계체제(세계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는 세계 구조)분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 빈곤에 대한 해방 신학의 적절한 분석을 덧붙인다. 이 두 분석을 신칼뱅주의에 접목시키는 기획이 핵심이다. 신칼뱅주의는 보편 세계의 구조를 보게 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해방신학은 이러한 구조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윌터스타인의 세계체제 이론과 해방신학은 윌터스토프가 집필할 당시 세계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 세계체제 이론은 경제적·군사적 패권 국가에 의해 세계화 시대

에 필연적으로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빈곤의 문제가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친화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중심부 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 사이의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세계체제에서는 발전과 개선의 물리적 혜택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해방 신학은 사회적 억압 구조와 압제자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구원의 신학을 개진했다. 특히 자결권을 가진 '자율성'이나 '자기 성숙'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긍정한다. 이 때문에 자유를 위해 압제자들과 불가피한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는 길은 타자의 해방을 위한 규범적 성찰과 실천을 수행하는 길이다. 이처럼 월터스토프는 세계체제 이론과 해방신학이 신칼뱅주의가 구조적 현실 인식에 눈을 뜨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의로운 사회는 성경의 평화와 만나야 한다. 월터스토프는 이 만남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 샬롬 안에 정의가 있고 정의가 없으면 샬롬도 없다. 그렇지만 샬롬은 정의 이상이다. 정의가 개혁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면 샬롬은 누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 타자와의 관계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나와 다른 자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모두 포함된다. 샬롬에는 개발과 해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경제적 불균형이 만연해 있고,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으며 민족적 과도한 충성이 점점 세밀화 되고 있다. 일정한 이데올로기는 이런 상태를 고착시키려 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제출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런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대안적 아이디어를 현실에 실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저항정신이자 저항적 대안 실천이다. 특히 전제적 권력과 폭력에 적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자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월터스토프는 믿고 있다.

월터스토프가 다른 장에서도 여러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에게 샬롬은 억압받고 소외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구체적인 상황적 실천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샬롬적 실천을 위해 학문은 이론화 작업과 순종적 행동의 상관성을 성찰하고 이론이 행동을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학문 연구도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자의 울부짖음을 듣도록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천은 자선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구조적 변혁을 의미한다.

그리고 월터스토프는 빈곤의 문제, 민족의 문제, 도시의 문제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생겨나는 부조리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인다. 인간과 세계가 만나는 성례전적 예배가 필요하다. 고통의 문제가 빠지고 정의가 상실된 예배는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종교화한다. 따라서 그는 일상생활의 리듬 자체가 예배의식에서 되살아나고 실행되어야 하고, 정의의 실현과 샬롬적 안식을 위한 순종적 다짐이 기념적 의식으로 재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육신적 자기희생의 성만찬이 다시 회복되어야 일상과 예배가 샬롬으로 만난다.

III

볼프가 『배제와 포용』에서 던지는 문제의식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다음 문장에 담겨 있다. “어떻게 압제당하는 이들의 정의에 대한 요구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가해자에게 베푸신 용서의 선물 모두에 충실할 수 있을까?”(14쪽) 쉽지 않은 질문인 만큼 그의 전개 방식도 여러 개념과 주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볼프는 이 두 가지 질문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사상들(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 성경 본문을 대면하고 대화한다.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끌어낸 주제인 ‘포용’으로 정의와 평화 문제를 다루는 점이 특이하다.

진리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누가 희생자이며 가해자인지 결정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그런데 볼프는 가해자와 희생자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반목하는 해방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구도는 정의를 이룬다고 복수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폭력(또는 불의)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프는 궁극적 목적으로서 화해와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볼프가 볼 때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화해와 포용의 신학이야말로 정의가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이 포용의 신학은 ‘억압받는 이에게 주신 소망’과 ‘그들에게 요구하신 급진적 삶의 변화 사이의 관계’ 모두를 구해 내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신학이다. 희생자들도 회개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사회변화가 가능하다. 시기와 적대감으로 가득한 옛 질서로는 진리도 정의도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옛 세계 질서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포용적 정체성을 지닌 세계)가 피난처를 만들어 내어야 사회 변혁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볼프는 포용이 자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의를 ‘배제’라고 본다. 배제는 자아와 타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사회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

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패권 중심의 세상에서는 자아는 타자의 영역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식민 통치하려 한다. 배제하기 위해 타자의 삶에 침투하고 지배하기 위해 배제를 일삼는다. 타자는 이런 배제의 희생양이 되고 폭력과 악행의 피해자가 된다. 타자를 공동의 영역에서 추방하고 일정한 영토를 독점한다.

그렇다면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와 평화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볼프가 정의 대신 포용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포용을 설명하기 위해 ‘포용’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가 제시하는 포용의 이미지는 배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림이다. 온전한 화해는 가해자와 희생자 이분법을 지양하고 가해자조차도 설 자리를 제공한다. 포용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잊는 것이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포용은 ‘팔 벌리기-기다리기-팔 모으기-다시 팔 벌리기’ 행위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볼프가 이 책에서 이 포용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정의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이렇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폐쇄적인 자아 정체성을 개방하고 타자를 원한다는 신호다. 그래서 자아에 균열을 낸다. 그 틈에 타자가 들어갈 공간을 만든다. 이것은 자아가 타자에게 들어갈 욕망을 내포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자아와 타자의 상호성에 기초해 있다. 기다리는 행위는 잠시 멈추는 행위로서 타자의 경계선에서 멈춘다는 것을 뜻한다. 포용을 강요하거나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지적인 기다림이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타자가 자아에게 자발적으로 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이것도 상호

성에 기초해 있다. 안는 행위는 상호성의 절정을 이룬다. 두 쌍이 팔을 벌리고 안는다. 자아의 행위가 곧 타자의 행위가 되는 순간이다. 여기에서 타자의 불투명성은 거부되고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다시 팔을 벌리는 행위에서 타자의 타자성이 이제 진정으로 보존되고 확인된다. 타자의 보존을 위해 자아는 뒤로 물러선다. 그래서 차이가 인정되면서도 서로의 흔적이 자기에게 남는다.

볼프가 포용을 포용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은 '내어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포용은 자기 내어줌의 결과다. 자기 내어줌은 타자에 대한 인정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 볼프는 자기희생을 통해 평등성과 상호성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참된 포용의 부드러움은 양쪽 모두를 변화시킨다. 그럼에도 팔을 벌렸을 때 타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 수 없다는 면에서 포용은 위험하기도 하다. 이것은 그만큼 포용의 행위는 내어줌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호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호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내어주는 자기희생이 함께 가는 정체성을 볼프는 삼위일체에서 찾는다. 삼위일체적 정체성은 '페리코레스시스'라는 '상호 내주'하는 정체성이다. 말하자면 서로를 해체시키고 결국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중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자아 안에 타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정체성이다.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을 우리의 사회에 적용할 방법에 그는 관심이 있다.

볼프가 삼위일체적 정체성이 포용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위일체 모델이 배제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누가 무엇에 의해 배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로슬라브 볼프

다. 그러나 배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기꺼이 포용하고 배제하지 않고 판단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타자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구별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언어 용법이 요구된다. 삼위일체적 정체성은 이러한 배제를 경계하면서도 구별(차이)을 무시하지 않는 적절한 개념이자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에는 주고받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상호 들어오게 하면서도 동시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관계의 역동성이 있다. 여기엔 추방과 동화나 종속화가 일어나지 않고 폭력이나 내버려둠이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볼프는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볼프는 십자가의 폭력성과 최종적 심판의 폭력적 배제의 불가피성을 언급한다. 그렇다고 이 폭력이 인간의 폭력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대적' 폭력이라는 점 때문이다. 십자가는 인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폭력의 연쇄 고리를 끊는다. 예수의 부활에 의해 새로운 세상의 현실이 가능하게 되었고 진리와 정의를 위한 투쟁도 계속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 즉 하나님이 진리와 정의를 붙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

리는 지식 속에서 타자를 포용하기 위해 폭력을 기꺼이 흡수하려는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469쪽)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다. 불의와 기만의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폭력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결연함이 숨어있다. 그래서 불쌍은 종말론적 심판을 최종적 화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속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배제하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폭력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인간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폭력도 거부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봐야 한다.



IV

불쌍은 사회 구조 변혁을 무시하지 않지만 적어도 『배제와 포용』에서는 화해적 정체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삼위일체를 닮은 자가 제거되지 않으면서 타자가 상호 관계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 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세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월터스토프는 사회구성원들이 살롬의 사회를 내다보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기를 촉구한다. 그는 사회변혁을 구조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는 일을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에 월터스토프도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 대해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포용하면서 살롬을 이루어야 한다.

정체성을 강조하든 구조 변혁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든,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는 이 땅에서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정체성(신적 본성에 참여한 자)과 사회적 삶의 실천(성령의 열매)을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정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 우리의 정체성과 대치되지 않으면서, 타자와의 만남(포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타자와 함께 하는 공간에 살롬은 싹을 내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김성민 목사 고신대와 고신대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서강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 철학, New Saint Andrews College에서 신학과 문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SFC출판부에서 편집장으로 있다.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의 일용할 지침서!
월드뷰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 준비하다.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스승 신국원에게 묻다!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의 필독서!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스마트시대, 핫한 주일학교,
HOW TO, 주일학교
주일학교 미디어 정복기!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스승 신국원에게 묻다!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오늘도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섬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신년이 되어 새로운 학생들도 만나고 의욕도 충만해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다.

기독교세계관학교 멘토, 신국원 교수에게 묻다!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Q1. 교수님, 주일학교 교사에게 세계관이 필요한가요?

영혼의 안경

미국의 ABS 텔레비전에서 1978년부터 30년 넘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영 중인 “20/20”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규 뉴스가 일간 신문이라면 이 프로는 『타임』이나 『뉴스위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최고의 시력을 뜻하는 2.0/2.0 비전에서 딴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는 제목처럼 뉴스 해설로 세상사를 밝히 보여주겠다는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접하는 보도만으로는 사건의 실상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도 해설이 좋으면 훨씬 더 재미 있습니다. 경기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적 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타락으로 어두워진 세계에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삶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얼마일까요? 전과 망원경으로 머나먼 우주를 발견하는가 하면 텔레비전을 통해 지구 반대편 사건을 안방에서 보고 들지만, 우리의 시선은 코앞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눈이 어두워진 탓입니다. 눈만 크게 뜬다고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부릅떠도 보이는 것은 세상뿐입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안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 시력: 20/20 비전

한국 사람은 서구인보다 눈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시력의 1.5는 미국에서 최고로 치는 2.0보다 좋다고 합니다. 영혼의 안목에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목이 근시이면 현실에 매여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늘 허황된 꿈만 꾸는 영적 원시안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영적 시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력이 1.5 정도라고 하겠습니까. 로마를 넘어 스페인을 선교지로 바라보았던 바울의 비전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겠습니까.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시력도 결코 아브라함이나 바울보다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영적 안목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

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전도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가치관이 혼돈된 오늘의 세상살이에서 바른 분별력은 성도의 필수적 덕목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인생의 미로 속에서는 영원을 보는 눈이 절실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세대를 분별하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요?

“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의 비전입니다.”



Q2. 성경의 비전? 비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영적 안목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주어집니다. 비전과 믿음의 밀접한 관계성은 히브리서 11장 첫머리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 “보는 것을 믿는 것”(Seeing is believing)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믿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도, 자손도 받지 못했습니다(히 11:13).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원망하고 한탄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

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의 실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상(實狀)을 보는 시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실상을 뜻하는 헬라어 ‘휴포스타시스’는 사물과 사태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실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는 이 사과와 저 배를 볼 수 있을 뿐 그 본질을 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상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여 숙고하는 정신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개념과 정의(定義)는 감각적 인식이 아니라 정신적 파악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능력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눈에는 실상을 보게 합니다.”

성경과 비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안목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비전은 눈으로만 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과 그를 통해 약속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늘 사다리 꿈을 통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늘 보좌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동생이 전하는 고향 소식을 들으며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마음에 떠올랐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근엄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말씀을 들으며 그의 눈을 덮었던 바리새파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요한 사도는 밤도 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비전을 가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갔고, 야곱은 삶의 태도가 철저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선지자가 되었고 느헤미야는 멸망한 나라를 회복하려는 비전가(visionary)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땅끝과 세상 끝 비전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비전에는 환상과 꿈 같은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말씀을 믿어 품게 되는 심상도 중요합니다. 비전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정신적 이미지”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비전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 본 내용은 <총회교육부의 교사용 교재>로 함께 제공됩니다.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신국원 교수와 총회교육부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MP) 등이 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인아 (울산 월평중학교 교사)



폴 마샬 저 | 김재영 역 | IVP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에 울고, 웃고, 슬며시 짓궂은 발상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도 한다.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긴 시간을 요구하는 책 속 이야기는 우리를 깊고 넓은 생각의 바다로, 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작가의 세계, 진정한 고민 속 별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경향이 있다.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의 저자 폴 마샬! 그의 이야기는 우선 재미있다. 지질학자로써 우리가 가보지 못한 지구 끝자락 구석구석을 탐사한 짧은 이야기가 일상과 만나고 있다. 적재적소에 소개되는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과 생물, 사물, 인물의 묘사가 특별하고도 탁월하다. 마을 주민들이나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도 흥미진진하고 책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그만의 세계관에 녹아든 행복이 배어 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에 기꺼이 동행하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천연 미소가 어우러져 어느새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세계만큼 무궁무진한 청지기직-일-노동 그리고 쉬에 대하여, 다시 땅으로, 일상의 삶으로, 그는 우리를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 길로 초대한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끊임없이 생겨난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직과 정의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 스스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듯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또 책임 있는 존재로 진정한 결정을 내려야할 진짜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본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인이 실천하는 책임 있는 행위가 작업 환경, 조직적인 구조에 의해 타락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유를 손상시키는 제도들을 향한 올바른 정치에 대한 논의도 빼놓지 않는다. 내 친김에 저자의 다른 저서인 〈정의로운 정치〉를 읽어보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틀이 탄탄하다. 무한한 다양성과 상황 윤리만



이 존재하는 듯한 요즘 세태에서 저자의 이 두 책을 모두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도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영적인 방향성(하나님의 세계의 선함과 영구성)을 개관하며 마음을 울린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수한 별빛을 보며 약속을 상기했듯이, 이 땅에서 내 집안 골방의 어두운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작은 촛불 하나 켜는 힘을 생성하여, 다시 깊고도 넓은 평화와 든든한 정치적 다스림이 빚어내는 안정감으로 하나님의 세계, 그분과의 약속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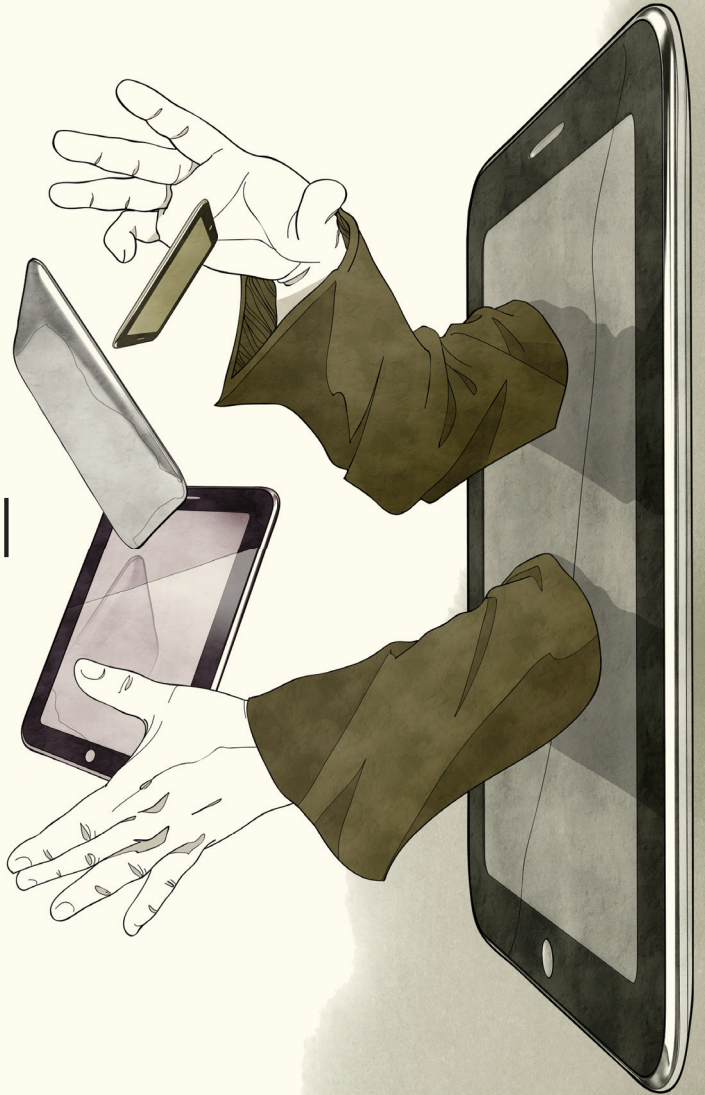
성경은 우리의 세계를 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저자는 ‘복음명령’ 못지않게 ‘문화명령’에 대해 통찰력 있는 실제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하여 청지기와 제자로서의 통합된 만남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시간, 에너지, 건강, 조직체, 가정생활, 노동양식, 건축, 정치, 환경 등에서 신실함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을 배우자. 이제나 저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신비 속에서...우리들의 천연 미소와 함께!

이인아

울산 월평중학교 교사로 현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문화전공(M.Ed) 석사과정 중에 있다.

주일학교, 미디어 정복기! 1편 위험한 기계

🕒 김희경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사무국장)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모 초등학교의 협조로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등교한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해 뉴스화 한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는 일이었다. 친구들이 들어와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스마트폰에 몰입해 있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은 옆 친구의 스마트폰을 함께 들여다보며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목격되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기자는 “마치 교실 전체가 ‘스마트폰방’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사실 이것은 비단 학교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공장소는 물론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데이트하는 남녀조차 서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게임에 몰입해있는 남자친구를 맥없이 쳐다보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지하철 등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한다.

스마트폰, 말 그대로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다. 손안에 들어온 컴퓨터, 그것도 기존에 쓰던 컴퓨터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편리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일할 수도, 놀 수도 있다.

스마트 기기가 사람을 스마트 하게 하는가?

우리는 최신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 된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스마트 기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기특하다”, “똑똑하다”를 연발하는 부모님이나 어른신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혹시 영상 미디어를 시청 혹은 조작(게임)하고 있을 때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가? 우리 뇌는 보통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빈둥거릴 때조차 무언가 활동을 한다. 그리 활발하지는 않아도 자꾸만 무엇인가를 생각해낸다. 생각을 해낸다는 것은 전두엽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애니팡 같은 게임을 할 때에는 놀랍게도 전두엽 활동이 점차로 떨어지다가 결국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실험은 이미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과 관련해 비슷한 실험들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혹시 궁금하다면 <위기탈출 넘버원>,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게임과 전두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을 하는 동안 전두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라.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 동안 전두엽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고 기능의 심각한 저하를 예상케 한다. 심지어 ‘게임 뇌의 공포’라는 책을 쓴 일본 니혼대학의 모리 아키오 교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사흘, 하루 1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

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사흘이 아니라 매일 일정량의 시간, 실은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

기계 이상의 기계

이미 요즘 아이들이 상식은 물론 자기 생각이 없다는 소리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하루 중 공부하는 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책 읽는 시간은 평균에서도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한 지 오래다.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상식이 풍부할 리 만무하고, “아이들이 아는 것이 없어서 단어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하소연하던 어떤 사회 선생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가?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니 두뇌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가? 어떤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 속에 사는 아이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시간과 속도와 기술의 변화를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인간의 몸과 삶이 함께 바뀌어가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과거의 시선과 그 문화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고 시대를 읽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작용은 거대한 ‘상실’로 다가온다. 테크놀로지는 발전할지 몰라도, 속도는 증가하고 편리해질지 몰라도, 내 옆에 앉은 이의 얼굴은 낯설어진다. 한 번 쳐다볼 일도 없고, 대화를 나눌 일도 없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일은 더욱 없다. 사회적 본능도 이미 손 안에서 해결되니 실체는 더 이상 실체가 아닌 셈이다. 가족의 가치도, 친구의 가치도, 기계가 대신한지 오래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혹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은 나의 000이다’는 문장을 주고 빈 칸을 채우게 해보라. 놀라



운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이미 기계는 더 이상 '단순히 기계'가 아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인격적 의미가 되었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집과 학교와 학원만을 강요하는 사회가, '나가놀이' 대신 '손 안에 놀이 기계'를 쥐어준 탓이다.

'틈'을 복구하라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왔다고 하여 갑자기 하나님을 찾겠는가? 강제로 스마트폰을 빼앗는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관계할 수 있다는 것, 세상과 조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이자 특권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은혜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핑계치 못하게 하심이다. 그러나 그 특권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문화와 기술을 가장한 사탄의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술을 개발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모든 기술은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고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기술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전략'에 의해 지나치게 '과잉'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어떤 '틈', 생각할 시간, 빈둥거릴 시간, 관계할 시간, 책 볼 시간, 놀아야 하는 시간을 모두 채워버려 '시도때도 없이 보게'만 만들어 버렸다.

정말로 미디어를 정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것 보기를 중단하기부터 시작해 보라. '틈'을 복구하라. 그러면 삶이 살아나고, 기계가 단지 기계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역소개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수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부모, 교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 전공자, 전직교사, 시민운동 활동가, 전문 기독교사역자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기관과 공동으로 강좌, 캠프,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위탁 운영합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종류의 캠페인 활동을 실시합니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이 땅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절제력을 키우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며,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생비자(生費者)로서 미디어의 역기능을 견제하고, 스스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활동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사와 학부모가 자녀 세대의 고충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좌 및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조언을 얻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02-2637-8725
http://norimedia.com



김희경 현재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자녀들이 오랜 노력 끝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해방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 경험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교육'에 녹여 강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사단법인

이 사 장 : 손봉호(고신대)*
부이사장 : 김의원(백석대)*, 양인평(로고스법무법인)*, 오정현(사랑의교회)
이 사 : 박상은(생명원)*, 양승훈(VIEW), 원동연(한국종합과학연구원)*,
 이강인(엘비전 대표), 이인용(상성전자 사장), 전광식(고신대)*, 조정민(CGN TV),
 조민재(국민일보), 한정화(한양대)*
공동회장 :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유정철(경희대)*, 조성표(경북대)*
감 사 :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김원수(패션그룹 형지) 가나다 순 / * 등기이사

실행위원회

위 원 장 : 김승욱(중앙대)
위 원 :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김원수(패션그룹형지), 김태형(명지대),
 김해정(CUP), 신국원(총신대), 유경상(CTC), 유정철(경희대), 이건창(성균관대),
 조성표(경북대), 정희영(총신대), 차영실(재정 실무 담당), 최태연(백석대),
 최현일(생여성병원), 한윤식(한동대)

후원위원회

위 원 장 : 김원수(패션그룹 형지) **교회담당 :** 강준근(한국성결교회)

세계관운동

지역관리위원회_박신현(고신대), 조창근(조선대), 교재개발위원회_최태연(백석대),
 대외협력위원회_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언론위원회_김진구(고신대),
 중장기발전위원회_정수균(선교사), 중보기도팀_유해신(좋은교회), 인터넷위원회_권오영(경희대),
 대학청년위원회_한윤식(한동대), 장강덕(대전과학원교회), 이선일(울산산망교회)
 세계관목회자포럼_김정일(강남교회), 성백영(반포침례교회), 장강덕(대전과학원교회)

월간 월드뷰

대표주간 : 손봉호(고신대), 발행인 : 김승욱(중앙대)

도서출판 CUP

대 표 : 김해정 **마케팅 실장 :** 윤여근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 정희영(총신대)
부회장장 : 국제협력_김중락(경북대), 대외협력_박문식(한남대), 학술_김태형(명지대),
 연구_유재봉(성균관대)
감 사 : 김상득(경북대), 신현호(백석대)
이 사 : 강영만(서강대), 김홍섭(인천시립대), 권태경(총신대), 윤안철(카이스트),
 장수영(포항공대), 조우성(고려대), 황호진(세종대) 외 12인
분과회회장 : 철학_양성태(우석대), 경제/경영_황익서(서울시립대), 문화/예술_송태현(이화여대),
 정치/외교_백승현(경희대), 교육_김정호(이화여대), 법학_이국윤(한동대),
 역사_권태경(총신대), 상담/심리_전요성(성결대), 문학_정정호(중앙대),
 의학_최현일(생여성병원), 사회봉사_양혜원(총신대)

신앙과학문 편집위원회

위 원 장 : 이건창(성균관대)
편집위원 : 계영희(고신대), 권정태(호서대), 김경민(전남대), 김동원(전북대), 김정호(국립한밭대),
 배용수(성균관대), 박신현(고신대), 신현호(백석대), 유지홍(광동대), 이의영(군산대),
 조창근(조선대), 현창기(한동대)

세계관연구소

소 장 : 조성표(경북대) **부 소 장 :** 김홍섭(인천대)

세계관아카데미

소 장 : 신국원(총신대), **부소장 :** 이승구(합동신대원대)
미디어아카데미원장 : 조정민(CGN-TV)
운영위원 : 강진구(고신대), 안중복(한세대), 임춘택(경남대), 유지은(PD), 장유진(미교필름)

VIEW

원 장 : 양승훈(VIEW)
이 사 : 조영택(밴쿠버 코스타 이사장), 박신일(그레이트스 한국교회 목사),
 김명준(밴쿠버 지구촌교회 목사), 김주영(신세계보험)

CTC

대 표 : 유경상 **팀 장 :** 한부익, 안성희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 사 회

실행위원회

후원위원회

사 무 국

연구

운동

교육

목표 :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사회의 변화 추구

출판 및 언론활동
교회협력

기독교학문
연구와 적용

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대학원 운영

RESEARCH

- **기독교학문연구회 (KCSI)**
 분과 : 철학/ 법학/ 의학/ 교육/ 역사/ 자연과학/ 사회복지/
 경영 · 경제/ 정치 · 외교/ 상담 · 심리/ 예술 · 문화
- **학술지 신앙과학문 (FAITH & SCHOLARSHIP)**
- **세계관연구소 (INSTITUTE)**

MOVEMENT

- **세계관운동 (DEW)**
 위원회 : 지역관리/ 교재개발/ 대외협력/ 중장기발전/
 대학 · 청년/ 언론/ 인터넷/ 목회자/ 중보기도
-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WORLDVIEW)**
- **도서출판 CUP**

EDUCATION

- **세계관아카데미 (ACADEMY)**
 아카데미 : 기독교미디어/ 교사/ 교수/ 목회자
- **밴쿠버 세계관대학원 VIEW**
- **청소년사역 CTC**

우리 함께 해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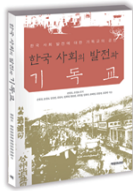
기독교학문연구회(KACS_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기독교적 학문 연구를 위한 학회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

-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춘계, 추계 연 2회의 학술대회 개최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발행

세계관연구소(Institute)

-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연구과제 발굴 및 진행 : 융합과제
- 2012년 연구과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각각의 분야로 분석, 연구/ 지난 7월 발행



운동

월간 월드뷰 발행(WORLDVIEW)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보기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신간 서평 안내

세계관 운동(DEW_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성경적 삶의 적용을 위한 활동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독교적 대안인 사회에 실천되도록 활동

- 신문, 방송, TV, 인터넷,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영향력 확산
- 각 지역의 교회, 대학들과 연계하여 세계관 교육 확산

출판사(CUP_Christian University Press) 운영

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전인적으로 조화된 균형 잡힌 도서를 출판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생각과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세계관아카데미(Academy)

-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
- 교수, 교사, 목회자, 언론인 등 전문 직종별 아카데미 운영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중)

세계관대학원(VIEW_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 현재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MACS) · 디플로마(Diploma) 과정 운영
- 기독교 역사상 종합대학에서 수여하는 첫 세계관 대학원 학위
- ATS(북미주신학교협의회)가 학위를 인정하는 북미주 최고의 프로그램

크리스천싱킹센터(CTC_Christian Thinking Center)

-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동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에 건강한 문화로 함께 풀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여 주십시오.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시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전화문의 사무국 대표전화 02) 754-8004

이 메 일 info@worldview.or.kr

후원계좌 국민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MS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 12월)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찬호, 김창현,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강동훈, 김경휘, 김은호, 김희원, 노승욱, 노주하, 백경은, 백선희, 생명의강, 영음사, 정세열, 진성자, 최승우, 최원길, 하태실, 한민좌, 한진영, 황보난이, 5천 고은하,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김효태, 박광재, 박기연, 박상균,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희,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충열, 윤경숙, 유중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은순, 이인수, 이인주, 이진영, 이항숙, 임선재, 임재영, 임춘택, 임형준, 장옥경,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천하은,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유,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권오현, 김영숙, 민수진, 백은미, 임주필, 이상환, 이주희, 최병호, 9천 윤경선, 1만 강은정, 강효식, 고은님, 권민규, 권성이,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동우,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영남, 김영완, 김요한, 김은덕, 김은순, 김은혜, 김정호, 김중국,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류익근, 류화원, 마민호, 박강국, 박능안, 박대원, 박두한, 박시운, 박영주, 박정옥, 박종원, 박진규, 박창우, 박태양,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지연, 서화진, 소종화, 손현탁, 송미정, 송중철, 신상형, 신성자,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안용준, 양병국, 양성만, 양성일, 양행모, 양혜원, 엄지은, 오지순, 유건호, 유경상,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동수, 윤상현, 윤영희, 이경숙, 이계실, 이관후, 이규현, 이길영, 이명동, 이명수,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상엽, 이시영, 이신영, 이연구, 이윤재, 이은재,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한길, 이해리, 임일택, 장승재,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성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차봉준, 차정규, 최삼영, 최성두, 최윤영,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추진원,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현, 현승건, 홍선호, 홍철의, 황규영,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백 김태우, 1만5천 김선화, 정상섭, 정필규, 최동원, 2만 강대훈, 김광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박영혜, 박종훈,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항아, 신혜용, 우시정, 원호영, 이대환, 이명희, 이현정, 이현정, 임지연, 전광학, 최용준, 2만2천5백 최종규,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박연호, 서성록,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창국, 임희욱,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조우성,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 박한,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한호, 서진희, 송인규, 윤석찬,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운식, 현은자, 6만 강진규,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익원, 박상은, 손봉호, 양인평, 전광식, 차명실, 최태연, 한정화, 24만 유재봉, 30만 김승욱

기관후원

7천5백 영암교회, 1만 빛과소금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 성덕중앙교회, 예심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십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나교회, 새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언약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 교회, 새로운교회, 1백만 백석정신아카데미, 엘비전

※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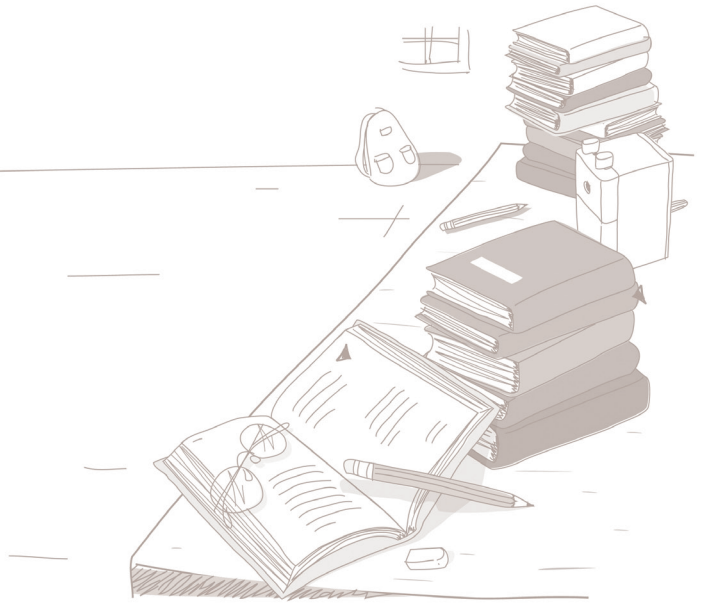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출판사 예영 커뮤니케이션
저자 손봉호 외 10인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이 책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세계관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간하였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130여 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사적으로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아 한국 사회에서 역사 속 한국의 기독교를 되짚어보고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월드뷰가 준비했습니다.

📄 정리 : 편집부

한국, 그리고 기독교

한국 사회가 최근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변한 것이다. 불과 60년 만에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시아에서 앞선 시민 사회를 이룩했다. 무엇이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는가! 분명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 현상은 딱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느 것도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 사회의 엄청난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원인 중에서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래와 그로 인한 역사관, 세계관의 변화와 사회, 경제, 교육의 변화이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발전에 기독교가 기여한 것에 대한 연구가 없는가?

한국 근대화의 시작과 기독교의 전래 시기가 비슷했고, 한국 사회의 발전 역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에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발생한 두 가지 현상들이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 사회나 기독교계에서 서로의 상관 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거나 고찰한 적이 없었다. 물론 일부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었다. 이에 이 책은 근대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래된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고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며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물론 이 책은 충분한 수준의 연구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 한국 기독교가 할 수 있었던 공헌을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농촌, 시민 운동 등 몇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가하고 반성해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도가 자극제가 되어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국 기독교는 그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고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먼저 서울대 명예교수인 손봉호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한국 사회의 역사관을 살펴보았다. 오늘의 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반도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의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손봉호 교수는 한국 사회가 발전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한국인의 역사관의 변화로 보면서, 역사관의 변천과 기독교인으로 한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내적 변화에 기초한 윤리회복을 촉구한다.

전 한성대 총장인 윤경로는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와 한국 기독교(개신교) 수용의 특징과 의의'를 다루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3기로 나누어 분류하여 민족사와 교회사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민족사를 좌절의 시기인 반면 민족사와 함께한 교회사를 성공의 시기로 보며 역사적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장신대 임성빈 교수는 ‘사회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한국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에서 총체적인 화두를 던진다.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발전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여러 지표 가운데 교회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분석했다. 더불어 21세기 지구화 시대 한국의 기독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중앙대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는 ‘기독교가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서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와 교회의 성장과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성장과 기독교의 성장을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경제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총신대 정희영 교수는 ‘한국 교육의 발전과 기독교’를 개화기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벤쿠버기독교세계관학교 양승훈 원장은 ‘한국 지성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역사와 단체들을 소개한다. 샘병원 통합의학암센터장이자 한국 누가회 이사장인 김민철 원장은 ‘한국 의료의 발전과 기독교’에서 한국의 역사 속에 의료의 근대화에 기독교 의료 선교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의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장신대 임희국 교수는 ‘일제 식민지 지배 시기(1910-1945) 한국 장로교회의 농촌경제살리기운동’에서 장로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해 논하였고,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인 류태영 교수는 ‘새마을운동의 발상과 기독교 정신’에서 한국의 경제, 사회, 국민의 정신 개혁에 새마을운동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기본 정신과 의식, 그리고 성과를 다루었다. 연세대 김강생 교수는 ‘빈곤의 문제와 가나안농군학교’에서 한국뿐 아니라 국제 빈곤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나안농군학교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북대 역사교육학과 김종락 교수는 ‘서구 문명



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에서 서구의 역사 속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기독교가 반추해야 할 모습을 상고하였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자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한국 사회의 발전에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발

전에 대한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을 연구한 책이나 논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있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헌신을 새겨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에게 미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임하길 바란다. 해외 선교사님들로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에 대한 발전 동인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문의를 받는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독교와 교회가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최근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발전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기독교의 역할을 알려 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가 도입 초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영향력도 매우 컸던 것이 분명하다. 그

런데 기독교 신자수가 급격하게 성장한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이에 과거의 유익한 경험들을 고찰하여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지난 2010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소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와 기독교학문학회(추계학회)를 통해 주제로 삼던 기독교학문의 발전 현황과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토대가 되어 준비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나, 다른 사회에서 교회의 가능한 공헌을 위해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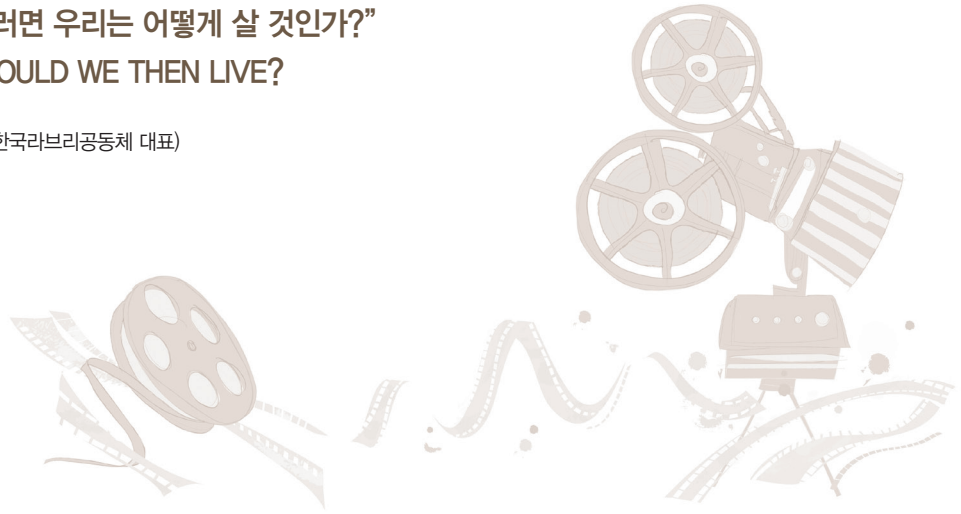
이 책은 그런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획되었다. 물론 이 책은 충분한 수준의 연구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자극제가 되어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쉐퍼의 서양 문명 비평 영화를 소개합니다

DVD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 성인경 (한국라브리공동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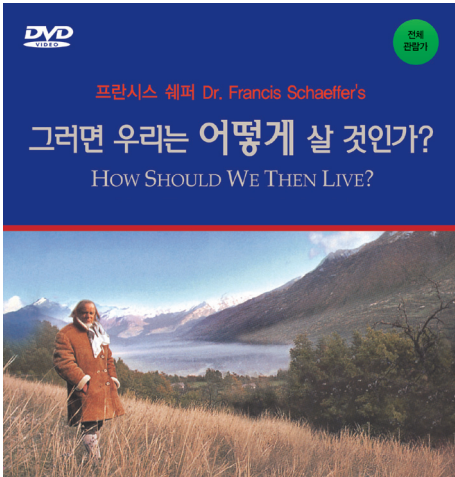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아시지요? 우리는 종종 태풍이 지나간 후에야 무너진 담과 벽을 고치느라 소란을 떨니다. 매년 여름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몇 차례 태풍이 지나간 후 우리 집은 지붕에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웅벽이 기운 곳도 있고, 토사가 무너진 곳도 있고, 습기에 못이겨 곰팡이가 핀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태풍 “산바”가 지나갈 때는 저희가 사는 라브리 백암당 뒤쪽 웅벽이 무너질까 마음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미리 외양간을 손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상화된 성폭력 혹은 성폭행 후 살인 등의 소름끼치는 소식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동성애, 혼전 섹스, 혼외 불륜 등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요즘은 양성애, 성폭행 등 온갖 성운리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나 성장통(成長痛)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큼니다. 겉으로는 올해 ‘무역 8대 국가 진입’이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곳곳에 치욕적인 윤리 부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의 후유증 치고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발전과 타락의 혼란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대정신(zeitgeist)을 꿰뚫어보며 현대 문명의 성장과 쇠퇴를 기독교 세계관의 눈으로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실패한 기독교 문명을 분석한 책이나 영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소리를 시작하면, “또 쉐퍼냐?” 혹은 “아직도 쉐퍼냐?”라고 싫증을 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보내준 글(중국은 우리의 땅끝입니다)에서 연변 과기대의 김진경 총장이 젊은 시절에 쉐퍼를 만난 것이 신앙과 지식이 하나 된 대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쉐퍼를 소개할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26살 김진경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주는 장학금으로 영국으로 철학을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근삼 목사(전 고신대 학장)가 김진경을 쉐퍼에게 소개하고 그가 스위스 라브리르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 숙박과 차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10시간이면 도착하는 길을 배로 약 65일 간이나 걸려 프랑스 마르세유 항에 도착하니 쉐퍼가 보내준 초대장과 지도 그리고 100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기차를 타고 스위스 라브리르로 가서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과 더불어 쉐퍼와 밤새 토론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라브리르 방문이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브리르에서 장차 세우고 싶은 지식 공동체의 모델을 보았다고 합니다. 김진경의 고백입니다.

“나는 라브리르에서 쉐퍼를 통해 (장래) 일에 대한 비전과 근거를 확립했으며, 신앙인의 윤리적, 실천적 삶, 제자의 삶을 배웠다.”

쉐퍼는 주님 곁에 간지 오래이지만, 그의 영화와 책을 통해 김진경과 같은 청년,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원치 않는 뜻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 한글판을 소개합니다. 김진경이 만난 쉐퍼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인간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 행위를 좌우합니다. 오늘날 폭력과 사회의 붕괴는 극심해서 전 세계 많은 도시의 길거리는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혼란을 다스리고자 위험스럽게도 권위주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순응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로마시대부터 살펴봅시다.”




쉐퍼는 이 다크에서 직접 자기 발로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로마시대에서부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예술, 과학, 철학을 분석합니다. 그는 서양 역사와 문화가 성경적 세계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오늘날 서구 문명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개봉한 이 다크멘터리가 한글판으로 나오기까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 10개와 부록 인터뷰까지 총 320분을 직접 들으며 한글로 번역해 주신 김호영씨, 번역 교정을 봐주신 김복경 목사, 한글 자막 더빙 기금을 대주신 염예지 화백, 복잡한 판권 계약 작업을 거쳐서 한국 교회에 좋은 선물을 해 주신 라이트하우스의 강인중 대표 등의 헌신과 수고가 따랐습니다.

책은 이미 오래 전에 번역이 되었으니, 매일 혹은 매주 한 번씩 모여 책을 읽고 영화도 한두 에피소드씩 보면서 토론하는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회사 그리고 교회에서 서구 사상과 문화의 발전과 쇠퇴에 대한 기독교적 통찰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또는 DVD 제작사인 라이트하우스(02-711-74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후두암 때문에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힘들고 허리를 의자에 묶어서 강단 위에 앉혀 주어야만 겨우 몇 마디를 할 수 있었던 임종 직전의 쉐퍼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강의를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스위스 목동 바지에 하얀 염소수염을 휘날리며 마지막 남은 힘까지 주님께 다 바친 작은 종의 직강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소개

 **라브리공동체** L'Abri Fellowship Korea

라브리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및 학습(學宿)입니다. 라브리(L'Abri)는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이며, 인생의 온갖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누구나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영적 피난처입니다. 정직한 의심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어떤 주제라도 라브리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질문이란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3년을 맞이하여 라브리에서 "기독교세계관학교"를 합니다. 1월 7일(월)~10일(목) 설악산 추양수양관(한경직 기념관)에서 진행하며 회비가 있습니다. 세계관 공부에 필요한 청년들과 지도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아래의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labri.kr>
 대표전화 033-673-0037
 메 일 yangyang@labri.kr

강아지와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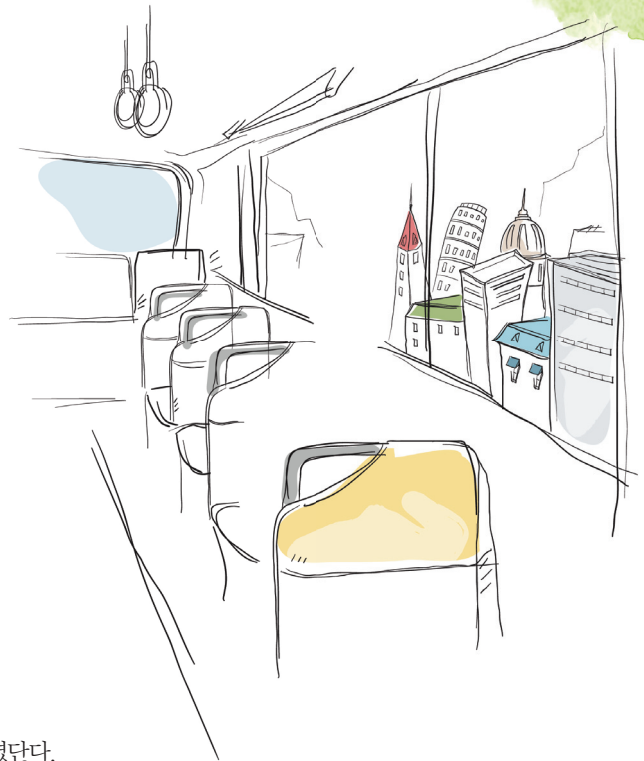
60여년 전이나 가능한 이야기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조그마한 강아지를 안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노신사가 그 옆자리에 앉았다. 조금 가다가 노신사가 시가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그 연기가 얼마나 독했는지 강아지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담배를 좀 피우지 않을 수 없느냐고 노신사에게 물었으나 노인은 “히!” 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계속 연기를 내뿜었다.

견디다 못한 할머니가 노신사의 입에서 시가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화가 난 노신사는 즉시 강아지를 집어서 창밖으로 던졌다. 피장파장이라 크게 싸우지도 못한 두 노인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한꺼번에 버스에서 내렸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겠는가? 노신사가 내던진 할머니의 강아지가 할머니가 내 던진 노신사의 시가를 물고는 꼬리를 흔들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충직한 강아지에 미소를 지으며 두 노인은 악수하고 헤어졌다.



WORLDVIEW NEWS

2013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총회 개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2013년 총회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보고와 2013년 사업소개 및 임원 임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회의 한해를 돌아보고 신년의 비전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정기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풍성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3년 1월 28일(월) 오후 3시
- 장소 교회회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새로운교회)
- 참석자 본 단체 정회원 및 임원
- 문의 사무국 02-754-8004



2013년 1차 실행위원회의 및 이사회의 개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2013년 실행위원회의와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해당 임원 및 이사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제1차 실행위원회의
- 일시 2013년 1월 21일(월) 오후 6시
- 장소 용산 사무국(용산구 이촌2동)

- * 제1차 이사회의
- 일시 2013년 1월 28일(월) 정오 12시
- 장소 엘타워 데이저홀(서초구 양재동)

〈신앙과 학문〉 18권 1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의 논문투고를 받습니다. 18권 1호의 발행일은 2013년 3월 31일이며 상시투고로 진행됩니다. 학문에 관심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시 아래의 메일로 투고신청서와 투고논문을 보내주시시오.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사무국 02-3272-4967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제8기 영상캠프가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제8기 영상캠프가 2012년 12월 26일(화)~29일(토)까지 3박 4일간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제8기의 전 과정은 2월 2일(토)에 마칩니다. 현재 9기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브리공동체 〈기독교세계관학교〉 캠프

라브리에서 2013년 겨울 기독교세계관학교를 2013년 1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설악산 추양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본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한국 라브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브리 033-673-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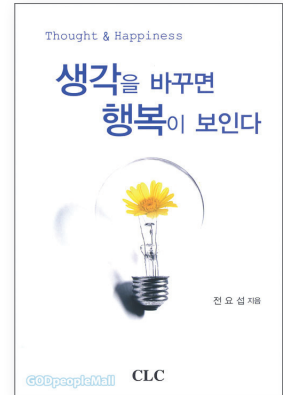
제3회 DEW기독교세계관 캠프

한동대학교가 주관하는 제3회 기독교세계관 캠프가 2013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본 단체의 이사장 이신 손봉호 장로님 외 임원분들께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본 단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양진규TA 010-6241-2670

회원동정

회원 신간 출간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_저자 전요섭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소 상담/심리 분과장이신 성결대 전요섭 교수님의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CLC)입니다. 지난 2012년 기독교 TV 〈4인4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생각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후원교회 청빙공고

주님의 교회(강원도 영월읍 소재)에서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창립된지 5년이 지난 작은 초교파 교회입니다. 작은 초교파 교회 목회에 사명을 지니신 귀한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님의 교회 www.hokmah.net
- 문의 054-673-7374
이창국목사 010-3870-7978



월드뷰 2013년 1월호를 읽으면 모두가 빙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 info@worldview.or.kr 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5분께는 N에서 후원해 주신 티셔츠, 에코백, 장바구니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가로세로는 영문입니다.

가로

1. 세계관, 본 잡지의 영어명.
2. 중세 초기 신학자로 인간이 악한 존재인 만큼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한 점에서 국가를 필요악으로 여긴 사람. (라틴어명)
3.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와 <배제와 포용>, 두 책의 원서(영어명)에 겹치는 단어.
4. 그리스어로 '상호내주'의 뜻을 가지며 삼위일체적 정체성을 설명할 때 쓰는 말.

세로

1.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의 저자, 니콜라스 ○○○○○○○○○○
2.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정신적 이미지.
3. 스위스 개혁주의 신학자 에밀 부르너는 '비록 권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이것에 위배되지만 이것을 위해 국가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드뷰에 광고하여 주십시오!

<월드뷰>는 회원분들의 후원과 광고후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리는 소망하는 분들께 전달되며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관 및 단체 후원을 받습니다.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립니다.

광고접수 문의 (대표전화) 02-754-8004 / 담당 : 김고은 간사
 이메일 info@worldview.or.kr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9기 모집! 지금부터 접수 받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첫발을 내딛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9기를 모집합니다. 한쪽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한쪽으로는 미디어 실기 수업을 통해 1인 미디어 시대에 기독교 미디어 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모집 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세례교인, 75년 이후 출생자)

접수 방법

1. 서류전형 cmca.or.kr 접속 후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2. 면접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실시
 - 서류접수 : 2013년 3월 22일(금)까지
 - 면접일시 : 3월 29일(금)~30일(토)
 - 기 간 : 2013년 4월 6일(토)~8월 31일(토) (예정)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00~6:00
 - 수업장소 : 서울국제크리스천 아카데미 (양재동)
3. 문의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우리는 월드뷰를 이렇게 활용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당신의 바른 관점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월드뷰로 세상을 본다!

♥ 언제나~ ♪

1. 먼저 나부터! **이매거진**으로 본다.
2. 함께 공유!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로 뿌린다.
3. 삶의 향유! 함께 **나눈다**.

어디서나~ ♪ ♥

1. **대중교통** 안에서
2. **직장**에서
3. **주일학교**에서
4. **공동체** 안에서

“주일학교 기독교세계관학교”를 정복하라!

1.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어려움을 돕습니다.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info@worldview.or.kr)
2.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 필독서 반드시 읽고 공유하기
일 년이면 12권을 읽을 수 있어요!
3. HOW.TO. 주일학교 활용
다양한 문화적 이슈를 전문 필진과 함께 풀어가요!



문의 02) 754-8004 www.worldview.or.kr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에서는 2013 월드뷰의 연재칼럼인 [주일학교 기독교세계관학교]의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학기부터 시작될 [주일학교 기독교세계관학교]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3년 신입생
현재모집중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o God!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4학년)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 02.557.7710

sic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